

정부와 군산시 지역경제 위기 극복 간담회 개최

방문단, 군산국가산업단지 방문해 고용위기 대응체계 점검·건의사항 청취 강임준 군산시장 비롯 일자리 상황 공유하고 정부지원방안 등 주요현안 논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고용 위기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인 군산시를 방문해 지역경제 회복에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19일 이목의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및 중앙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방문단은 군산국가산업단지에서 방문해 한국 GM 가동중단 직격탄을 맞은 오식도 등 현장방문에 이어 고용위기 대응체계 점검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이목의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강임준 군산시장, 이한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협력업체

대표 등 16명이 참석해 최근 일자리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지원방안 등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군산 산업의 주축이었던 조선업종과 자동차업종의 붕괴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였고, 연관 산업의 동반침체로 현재 일자리상황이 어렵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고용 및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이목의 부위원장은 공감을 표시하며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위기지역 지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으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며 "현대중공업 수주물량의 군산조선소 배정과 한국GM 군산공장의 조속한 활용 방안 마련이 궁극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 5월에 설립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기획, 심의, 조정 및 정책 시행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평화당 전북도당 논평에 깊은 유감

"실제 필요성·타당성 여부와 전북도의 상생발전은 뒷전 KTX혁신역 신설 정치적 수단으로만 삼은 처사" 유감 표명

정헌율 익산시장은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내놓은 논평에 실제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와 전북도의 상생발전은 뒷전으로 미룬 채, KTX혁신역 신설을 정치적 수단으로만 삼은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민주평화당의 경솔한 입장표명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민주평화당은 불과 3개월 전인 지방선거 당시 익산역 앞에서 KTX혁신역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어 익산역 죽이는 혁신역 결사반대"를 외쳤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KTX혁신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고 KTX혁신역 신설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되고 한 달여 만에 기존입장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으로써 익산시민의 민심

을 저버리고, 국민을 무시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KTX혁신역은 익산의 생명줄로서 우리시의 명운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13일자 전북도당의 논평이 도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위원장 개인의 의사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30만 익산시민을 대표하는 익산시장으로서 소속 정당이 익산시민과 뜻을 달리한다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미 2015년 논란 당시, 익산역을 거점으로 주변 도시와 연계하는 것이 효율과 안전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히며 혁신도시 지역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호남고속철을 건설한 근본 취지는 수도권과 호남권을 신속하게 연결하여 고속철도를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확산시키는데 있으며, 현재 익산시는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 사업 및 주차장 확보 등 인근도시의 접근성과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민아카데미 최종발표회 대성황

익산시가 제9회 익산시민아카데미가 지난 18일에 개최된 최종발표회(주최 익산시, 주관 희망연대)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익산 모현도서관에서 열린 이날 최종 발표회는 참가팀원과 전문심사위원, 100명의 시민 평가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 프로젝트 발표, 평가, 축하공연, 시상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뿌듯하고 즐거운 실내 축제의 장이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하여 예년보다 짧은 일정으로 진행된 익산시민아카데미는 지난 8월 9일 개강이후 7개 참가팀이 7주간의 학습과 토론, 현장답사, 심진지 견학, 워크숍을 거쳐 숙성시킨 사업을 최종발표회를 통해 마음껏 제안했다.

한편 2018 익산시민아카데미는 7개 팀 총 62명이 참여했으며, 심사결과 이리남중학교 학생들과 선생님이 모여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을 제안한 '늘게나무' 팀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구체화시켜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으며, 시민과 함께 만든 아이디어가 앞으로 익산시를 이끌어 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익산 대물림 맛집 인증서 수여·현판식

대물림 맛·운영기여도 등 최종 심사 거쳐 선정 진미식당 등 선정 업소 황동주물 현판 만들어 전달

2018 전국(장애인)체전 주 개최 도시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19일 시청 홍보관에서 대물림 맛집 인증서 수여식 후 무진장 갈비촌(남중동 소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대물림 맛집 인증은 익산에서 오래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이번에 선정된 업소들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 대를 이어 3년 이상 운영한 일반음식점으로 대물림 맛과 운영기여도, 위생, 서비스 등을 서류평가, 현장심사, 심의위원회의 등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된 업소들은 음식을 비롯해

비법이 전수된 대물림 과정도 이름만큼이나 다양한데 육회비빔밥이 주특기인 진미식당(황등면 소재, 영업기간 45년)은 외환머니에서 어머니, 아들로 3대가 대물림되었으며, 한일식당(황등면 소재, 영업기간 33년 육회비빔밥)은 어머니에서, 이모, 조카에게, 반아들술밥(모현동 소재, 영업기간 35년)은 어머니에서 아들로, 전주소바(인화동 소재, 27년)는 장모에서 사위로 맛의 비결이 전수됐다.

시는 이 업소에 대하여 황동주물 현판을 만들어 전달하고, 위생복은 익산시 외식업 지부에서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현장 방문 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화장실, 조리장 등 위생 및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시설개선자금 등을 요청하면 연 2%로 자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지역 고유 대물림 업소 발굴 육성으로 음식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다"며 "2018 전국(장애인)체전, 천만송이 국화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시 우리시 방문객들에게 일품의 맛으로 손님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서비스와 위생 친절도 향상을 통한 업소 수준 향상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2018 전국체전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

군산시는 2018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9일 이승복 부시장 및 관과 읍면동장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국체전·전국 장애인체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추진상황 총괄 보고 및 각 부서별 지원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10월초까지 전국체전에 대비해 경기장별 보수 사업을 완료하고 대규모 행사에 따른 손님맞이를 위해 가로 환경을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체전 운영에 필요한 업무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승복 부시장은 "이번 체전은 15년 만에 전북에서 개최되는 뜻깊은 대회로,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닌 군산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 잠재력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체전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8 전국체전의 일반체전은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체전은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주 개최지인 익산시 등 도내 14개 시·군에서 개최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시민 대상 인구정책 내달 10일까지 아이디어 공모

군산시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등에 따른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 10일까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 주제는 저출산 대응정책, 청년 일자리 문제, 과소(過小)마을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의 인구유입 및 감소대책, 가족친화문화 조성 등 인구문제 대책과 관련된 창의적인 제안을 받는다.

시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이메일(ssdw0116@koreakr), FAX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공모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경제성,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부서 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 11월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일반인과 시청 공무원으로 구분해 시민은 최우수상 1명 100만원, 우수상 1명 50만원, 장려상 3명 각 10만원의 군산사랑상품권과 시장 표창이 수여되며, 공무원은 최우수상 1명 50만원, 우수상 1명 30만원, 장려상 2명 각 10만원의 군산사랑 상품권과 시장 표창이 수여된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기획예산과(☎454-232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전통시장 방문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3개팀(18명)으로 구성된 현장 홍보단은 시장홍보지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홍보 전략을 펼쳐 더욱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지난 6월 개소 이후 9월 현재까지 5천여명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1천3백여명의 시민들이 지원 서비스를 이용 그 중 47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전통시장 방문 홍보활동 펼쳐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전통시장 방문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3개팀(18명)으로 구성된 현장 홍보단은 시장홍보지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홍보 전략을 펼쳐 더욱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지난 6월 개소 이후 9월 현재까지 5천여명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1천3백여명의 시민들이 지원 서비스를 이용 그 중 47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